

대학 확장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농학계 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중심으로-

김진화* · 김성수* · 권일남**

*서울대학교 · **명지대학교

A Study on the University Agricultural Extension Education in Korea

Jin Hwa Kim*, Sung Soo Kim* and Il Nam Kw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Myong Ji University

Summar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present situation of agricultural extension education implemented in agricultural colleges since 1993 and to explore the development directions for strengthening the agricultural extension education in Korea.

The Advanced Agricultural Management Program (AAMP),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a rural adult education program for selected young farmers as a part of university extension education. The AAMP offers classes to farmers to improve their managerial skills in farming including high-technology agriculture, farm management,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nd also offers various classes in the area of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affairs to improve leadership.

Since the innovative AAMP started in March 1993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18 local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have adopted this model within six months to a year period. The AAMPs are integration of formal education with extension education, and expected to develop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of rural areas and a strategic model for rural development. The program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develop human resources in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activate university extension, and lead th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urban and rural sectors in Korea.

I. 서론

확장교육(extension education)은 농업·농촌 분야에 적용된 농촌지도(agricultural extension education)와 비농업 분야에서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 확장교육(general extension education)으로 발전되어 왔다(Blackburn, 1984 : 2). 그 중에서 농촌지도는 그 형태와 전개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¹⁾에 보급

1) 1990년 FAO의 'International Directory of Agricultural Extension Organization' 라는 책에서는 전 세계국가 중

되어 실시되고 있다(FAO, 1994).

그동안 우리 나라의 농촌지도는 행정기관중심 체제로 이루어져 왔다. 행정기관중심 체제 하에서의 농촌지도사업은 1970년대의 식량자급과 1980년 이후 혁신적인 농업기술의 전파와 복지 농촌건설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농업생산이 대량 생산체제에서 소량 다품종체제로 전환됨과 동시에 농촌의 주민들의 의식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행정중심체제 하에서의 농촌지도사업이 많은 한계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국가 책임하에서의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을 포기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농촌지도사업을 이관시킴으로써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어 온 행정중심체제의 농촌지도사업에 변혁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농촌지도가 태동하게 되었다. 물론 대학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이 행정중심체제의 농촌지도사업의 대안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대학의 교수, 연구, 봉사라는 3대 기능 중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봉사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초까지 우리 나라 농업에 불어닥친 UR협상의 진통과 함께 우리 농업·농촌을 지켜 건설하게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이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기되면서 농학계 대학이 행정기관과의 산학협동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농촌 주민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아직까지 대학 중심체제의 농촌지도사업인 전국 농학계 대학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¹⁾이 그동안 행정중심체제가 수행해 온 것에 비하면 매우 미약하지만, 향후에 농업·농촌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이 탈행정중심체제 하에서 다원

화가 예상되는 만큼 농학계 대학의 농촌지도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중심체제의 농촌지도사업의 초기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전국 농학계대학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탈행정중심체제 하에서의 농촌지도사업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대학 확장교육과 농촌지도사업의 관계

본래 확장(extension)이란 뜻은 대학이 갖고 있는 인적·물적·과학적 자원을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장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각국에서는 대학 확장교육을 자문활동(advisory service)이라 명명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불밝힘 활동'(voorlichting)이라 하는데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쉽게 갈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는 활동이라는 의미이다. 프랑스에서는 대학 확장교육을 '간편화 활동'(volgarisation)이라 하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하여 주는 활동이라는 뜻이다(최민호, 1995 : 9-10).

대학 확장교육(university extension education)이란 용어는 1873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대학이 정규 학생이 아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Blackburn, 1984 : 2). 이러한 활동이 미국으로 전파되어 미국 주립대학에서도 실시되었는데 주로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한 데서 농촌지도사업(agricultural extension

에서 115개국²⁾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Extension Education'을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대학중심체제의 농촌지도사업의 형태는 1993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설치·운영된 이후 1997년 현재 전국 농학계대학에 19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education)이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최민호, 1995 : 9). 이제까지 확장교육은 농업분야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지도(agricultural extension education)와 비농업 분야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대학 확장교육(general extension education)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확장교육은 그 본래의 성격과 약간 다른 형태로 보급되고 발전되어 왔다. 첫째, 어원적으로 확장(extension)이란 용어에는 기준점이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인데 반해 우리 나라에서는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사업이 이루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 용어는 엄밀히 말해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확장의 본래 의미가 반영되지 못한채 발전되어 왔다. 즉 교육기관 중심체제 하에서의 농촌지도사업이 아닌 행정기관체제 하에서의 농촌지도사업이 전개되어 온 것이다. 둘째로 보급 초기에는 일반 대학 확장교육(general extension education)의 개념이 거의 도입되지 못해 확장교육이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최근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이 강조되고 교육기관과 산업체 및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비농업분야의 확장교육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대학에 개설된 공개강좌의 형태인 '최고경영자과정'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많은 대학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회교육원'이 바로 그것이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우리 나라 농업 분야에서의 농촌지도사업(agricultural extension education)이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체제하에서의 농촌지도사업이 '확장'(extension)이라는 기본 취지와 잘 어울리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1970년대 식량자급과 1980년대 농업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농업이 대량

생산 및 다수확 체제에서 소품종 소량생산체제로, 그리고 농민의 요구가 다양화되는 현실 속에서 행정중심 농촌지도체제에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 민간단체, 농업관련 기업체, 그리고 정부행정기관 등을 통한 농촌지도의 다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 하겠다.

1993년 이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설치되어 전국 농학계 대학에 확대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이러한 농촌지도의 다원화를 반영한 일종의 흐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확장교육'(extension education)의 기본 취지를 반영한 대학중심 농촌지도체제로의 시작이라 할 수도 있다. 현재 전국 각 지역에 19개 농학계 대학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설치되어 운영되어 많은 농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행정기관중심 농촌지도사업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농학계 대학이 교수·연구·봉사 라는 대학의 3대 기능 중에서 사회봉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채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매우 미비한 역할만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학계 대학이 공개강좌를 개설하여 농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농촌지도교육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 농촌지도사업의 새로운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농학계 대학 확장교육의 실태 분석

1. 농학계 대학의 확장교육 실시 배경

최근에 대학에서의 확장교육은 농학계 대학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사회교육원"과 "평생교육원", 그리고 "최고경영자과정" 등과 같은 형태로 일반 시민들에게 대학교육이 개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1970년대 평생교육 이념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시민 정신교육, 교양교육, 취미교실 등의 공개강좌를 각 사회교육 단체 및 대학이 개설하면서부터 꾸준히 발전되어 온 결과였다. 대상은 노인, 일반시민, 청소년, 농민, 미혼여성, 주부 등으로 다양하며 내용은 교양, 보건, 취미, 안보, 농업, 경제, 인간관계, 무역, 여가, 관광, 지역사회봉사, 인문교육 등 학습자와 사회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선정·구성되어 전개하여,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부분의 대학 사회교육기관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민들의 여가와 사회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농학계 대학에서 확장 교육은 1990년대 세계 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UR협상이 타결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전국의 19개 지역의 농학계 대학에 설치, 운영되어 농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농학계 대학에서 확장교육이 시작된 시기는 개방화 시대의 농촌의 발전을 위해 1993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내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설치된 때이다. 그 후 지역별로 전국의 농과대학 및 관련 기관에 총 19개 과정이 운영되게 되었다.

농학계 대학에서 확장교육이 실시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WTO 체제가 출범되면서 우리 농업·농촌의 많은 문제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던 시기에 정부와 학계, 그리고 농업인들 모두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였다. 정부에서는 「농특세」를 통해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하고 한국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들 중 “전문농업경영자육성”은 미래 한국 농업·농촌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었다. 그러나 이제까

지 정부에서 추진해 온 「농업인후계자육성사업」은 경제적인 지원 이외의 영역에서 큰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육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당위성이 대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학계 대학은 대학 확장교육(university extension)을 통한 사회봉사의 필요성만을 인식할 뿐, 제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그러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왔다.

한국의 미래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행정기관의 인식과 대학의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갖지 못했던 대학의 요구가 일치하여,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경기도청이 협력하여 1993년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설치·운영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출발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전국의 각 지역의 농학계 대학에 파급되어 현재에는 지역적으로 19개 농학계 대학에 설치되었다. 대학의 확장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농학계 대학의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미래의 한국 농업·농촌을 위해, 나아가서는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 농업부문에서의 전문농업경영자를 육성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기관이다.

2. 지역별 농학계 대학의 확장 교육기관 현황

농학계 대학 확장 교육기관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19개 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에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농협대학, 그리고 신구전문대학 등 3개, 충청지역에는 충북대학교 농과대학과 건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등 2개, 충남 지역에는 충남대학교 농과대학과 단국대학교 농과대학, 그리고 공주대학교 산업대학 등 3개, 경남 지역에는 경상대학교 농과대학과 진주산업대학 등 2개, 대구·경북 지역에는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안동대학

교 농업개발원 등 2개, 광주·전남 지역에는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순천대학교 농과대학, 목포대학교 등 3개, 전북 지역에는 전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1개, 강원도 지역에는 강원대학교, 강릉대학교 등 2개, 제주 지역에는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1개 등 총 19개 기관이 지역별

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농학계 대학 확장교육의 명칭은 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라는 명칭이 대다수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농업전문경영인과정”, “영농교육원”, “농촌사회교육”, “농어업경영자과정” 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었다.

<표 1> 지역·대학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현황

지 역	대 학	과 정 명
경 기 도	서울대학교 농생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신구전문대학	농업전문경영인과정
	농협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충 북	충북대학교 농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겨울영농대학)/창업농업경영자과정
	건국대학교 농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충 남	공주대학교 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여성농업최고경영자과정
	단국대학교 농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충남대학교 농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경 남	경상대학교 농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진주산업대	최고영농자교육원
경 북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안동대학교 농업개발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전 남	순천대학교 농대	영농교육원
	전남대학교 농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목포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전 북	전북대 농업개발대학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강 원 도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강릉대학교	농어업인 교육원
제 주 도	제주대학교 농대	농어업경영자과정

1) 농학계 대학의 확장교육 인원 변화

농학계 대학 확장교육에 참여한 농업인들은<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에 최고농

업경영자과정이 설치·운영된 이후 1997년 현재까지 전국의 각 지역의 농학계 대학에 확대되면서 교육 수혜자인 농업인들의 수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예시적으로 서울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경우 제 1기 과정 학생은 50명으로 출발하여 제 2기 과정 100명, 제 3기과정 126명, 제 4기 과정 123명이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 5기과정 학생은 116명으로 작년 보다는 감소되었으나 제 5기 과정 부터 경기도 한수 이북 지역의 거주 농민들을 위해 농협대학에 본 과정을 설치 운영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교육기회는 더욱 확대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제 5기 과정 부터는 입학기준을 그동안 농업인 후계자로 한정하였던 것을 모든 농업인으로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특별 학생으로 받아들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 후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여 농학계 대학 확장교육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표 2> 대학별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인원 변화과정

대 학	과 정 명	93	94	95	96	97	비 고
서울대 농생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50	100	126	123	116	
신구전문대	농업전문경영인과정			40	40	40	
농협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50	
충북대 농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창업농업경영자과정 겨울영농대학					70 20	'93부터 70명정원 자료없음 '96부터 30명 " '97부터 20~30명정원 "
공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여성농업최고경영자과정			40 20	40 20	40 20	해당자료 없음
충남대 농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96	'97 이전자료 없음
경상대 농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최고여성농업경영자과정		69	100 45	99 47	100	'97년부터 잠정중단
진주 산업대 최고영농자 교육원	최고영농자과정			40	40	40	'78~'94 새농촌 영농교육 실시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50	60	86		'97년 자료 없음
목포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40	'97 이전자료 없음
강원대	농촌사회교육원					80	'97 이전자료 없음
제주대 농대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137	'95시작 이전자료 없음

3. 농학계 대학 확장교육의 전공 현황 및 변화

농학계 대학 확장교육의 전공 분야는 각 대학의 여건, 지역농업의 특성,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독특하게 운영되고 있으며(<표 3>

참조), 그 영역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시적으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경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창기 제 1기 과정때는 원예, 축산 등 2개 전공 분야이

<표 3> 대학별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전공과정

대 학	과 정 명	전 공 과 정
서울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한우, 낙농, 양돈, 양계 과수, 화훼, 채소 수도작 총 8개
신구전문대	농업전문경영인과정	화훼, 채소, 축산 총 3개
농협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화훼, 채소 총 2개
충북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과수, 채소, 한우, 낙농, 양돈, 특작, 총 6개
	창업농업경영자과정	단기코스
	겨울영농대학	쌀, 한우, 낙농, 양돈, 시설채소, 화훼, 포도, 잎담배, 버섯 총 9개
공주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원예, 축산 총 2개
	여성농업최고경영자과정	원예, 축산 총 2개
충남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원예, 축산 총 2개
경상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작물, 원예(시설채소·화훼, 과수전공), 축산(양돈, 한우·낙농전공) 총 3개
	최고여성농업경영자과정	작물, 원예(시설채소·화훼, 과수전공), 축산(양돈, 한우·낙농전공) 총 3개
경북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채소, 과수, 특작·수도작, 축산전공 총 4개
목포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채소, 화훼 총 2개
전북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작물, 원예, 축산 총 3개
강원대	농촌사회교육원	농업, 임업, 축산 총 3개
제주대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감귤, 원예, 축산, 수산, 정책 총 6개

<표 4> 주요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전공과정 변화

대 학	93	94	95	96	97
서울대	원예, 축산 총 2개	대가축, 중소가축, 과수, 채소, 화훼 총 5개	수도, 한우, 낙농, 양돈, 양계, 과수, 화훼, 채소 총 8개	수도, 한우, 낙농, 양돈, 양계, 과수, 화훼, 채소 총 8개	수도, 한우, 낙농, 양돈, 과수, 화훼, 채소 총 7개
신구전문대			화훼, 채소, 축산 총 3개	화훼, 채소 총 2개	화훼, 채소 총 2개
전북대				전공구분 없음	작물, 원예, 축산 총 3개
경북대		채소, 화훼, 과수, 특작, 축산 총 5개	채소, 과수, 특작, 축산 총 4개	채소, 과수, 축산, 특작·수도작 총 4개	채소, 과수, 축산, 특작·수도작 총 4개

있던 것이 '95년 제 3기 과정부터는 한우, 낙농, 양돈, 양계, 과수, 채소, 화훼, 수도작 등 8개 전공으로 세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은 감귤, 원예, 축산, 수산, 정책 등 5개 전공 분야로,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의 경우에는 농업, 임업, 축산 등 3개 전공 분야로,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의 경우에는 작물, 원예, 축산 등 3개 전공 분야로, 충북대학교 농과대학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과수, 채소, 한우, 낙농, 양돈, 특작 등 6개 전공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다.

특히 충북대학교 농과대학에서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이외에 창업영농경영자 과정과 겨울 영농대학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어 농학계 대학 확장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

4. 농학계 대학 확장교육 교육프로그램 구성 현황

최고경영자과정은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교육기간 및 시

간은 매주 10시간 교육에 1학기 16주, 2학기 16주로 총 32주(320시간)동안 교육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320시간이라는 것은 본 과정에 입학한 농업인 후계자들이 1년동안 배우게 되는 교육주제가 160여개에 이른다 할 수 있다.

교과과정은 농업경제, 농업정책, 농업정보, 지역사회개발, 리더쉽 등 농업일반과목과 각 전공별 세부과목, 현장견학, 분임토의, 종합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표 5>와 <표 6>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1년 동안 이수되는 교과내용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대학이 있는데, 주로 공주대학교, 경상대학교, 충남대학교 등으로 이들 대학들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촌여성들에게 필요한 매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적게는 8시간에서부터 많게는 32시간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농촌여성들을 위한 이러한 별도의 과정 개설은 여타 지역과 대학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 확산이 점차 예상되고 있다.

<표 5> 서울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교과 구성

교 과 내 용	시 간	비 율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 수료식	20H	6.3%
농업일반 <농업경제/농업정책/협동조합/지역사회개발>	112H	35.0%
전공과목 <한우/낙농/양돈/양계/과수/채소/화훼/수도작>	96H	30.0%
컴퓨터 이용실습 <컴퓨터상식/HWP/통신/데이터베이스>	32H	10.0%
현장견학(2회) <선진 농가/연구소/시험장>	20H	6.3%
분임토의 <작목반운영/지역사회개발방안/농업·농촌문제>	20H	6.3%
종합평가 <설문조사/시험/논문발표/사업계획발표>	20H	6.3%
계	320H	100%

<표 6> 경북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교과 구성 내역

전공별	시간배정		현장교육시간	현장지도 (학기당)	체육대회
	교양시간 (%)	전공시간 (%)			
채소전공	198 (62%)	100 (31%)	10	1회	4시간
과수전공			20		
특작 및 수도작 전공			10		
축산전공			10		

<표 7> 최고농업경영자과정내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과정	교과목 (과목당 2시간)	총시간	
공주대 여성최고농업경영자 과정 ('97. 1학기)	현대주부의 역할, 미용강좌, 조리실습 I, II 논문작성법, 농업경영의 진단과 설계, 컴퓨터의 기 초이론, 컴퓨터의 이용실습 I, II 총 9과목	총 18시간	
경상 대	최고여성농업경영자 과정('96. 1학기)	농장회계이론과 실제 I, II, III, IV, V 가정학습과 학부모의 역할, 농업에 대한 가치변화 와 여성의 역할, 농장경영사례발표요령, 중년여성 의 질환, 영농기계화와 여성등 총 16과목	총 32시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통합후('97. 1학기)	농업에 대한 가치변화와 여성의 역할, 가정학습과 학부모의 역할, 중년기 여성의 질환, 행복한 부부 생활 총 4과목	총 8시간
충남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촌발전과 여성의 역할, 요리강습, 농촌여성의 피 부관리, 부부간의 성·자녀의 성교육, 여성과 가정 경제등 총 10과목	총 20시간	

5. 입학 대상 및 선발의 기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중심으로 한 농학계 대학 최고 농업경영자과정의 교육대상은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될 시기에 주로 농업인후계자들이었으나, 각 대학과 그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1997년 이후부터 차츰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서울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는 그 대상이 농업인후계자로 지정된지 3년이 경과된 자로 한

정되었으나 1997년 부터는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전 농업인으로 확대되었으며, 또한 대학 측은 일부 비농업인도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정책과정'을 설치하여 비영농종사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제주대학교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앞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차츰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도 교육기회를 확대할 것이 예상된다 할 것이다.

한편, 입학 선발기준도 각 지역과 대학마다 매우 약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1996년까지는 주로 농업인후계자로 지정된 자를 원칙으로 하여 시·군 지역 관청이 경기도청에 추천하여 선정된 자에 한하여 대학이 소양고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경상대학교, 경북대학교, 농협대학, 공주대학교 등이었으며, 전북대학교의 경우에는 농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표 8> 참조).

<표 8> 대학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입학자격 및 선발기준

대 학	선 발 기 준
서울대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양고사 및 면접을 통해서 선발
신구전문대	신구전문대학 부설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규정 제 12조(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성별·연령 및 학력상의 제한을 두지않는다. 다만 이수과정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간단한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13조(입학지원자가 입학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전형방법에 의한다. 1) 서류전형, 2) 면접, 신체검사, 소양검사 3) 관련분야 산업체장의 추천서)
농협대학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양고사 및 면접을 통해서 선발
충북대	모집요강의 지원자격은 도내 농촌지도자, 도내농어민후계자, 도내 생활개선회원, 기타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모범 농업경영자이고 전형은 1차심사: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사후, 군수추천 2차심사: 서류심사 및 면접
공주대	도당국에서 군에 의뢰하면 군에서 면에 공문하달로 면에서 추천
경상대	경상대학교 농과대학 농업전문경영자과정 운영규정 제 4조(입학자격은 경상남도내 농민후계자, 농업경영자, 영농희망자등으로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 제6조(전형방법은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경북대	경북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규정 제 6조(입학자격은 농어민후계자농어업전문경영인, 위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 7조(선발은 대학원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선발)
전북대	농민단체에 추천의뢰 / 인원배분

6. 일인당 교육비용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일인당 교육비는 그 액수 면에서 각 지역과 대학에 따라 약간에 차이가 있으나, 교육비의 부담은 입학한 농업인

이 지불하는 자부담과 시·도 행정관청에서 보조하는 지원금으로 나누어 진다. 자부담의 비율은 각 지역과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농업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전혀 없는 경우에서부터 교육비 전액의 30%를 부담하는 경우

까지 있다. 그리고 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각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인당 175만원을, 충남대학교의 경우에는 180만원을, 충북대학교의 경우에는 157만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다(〈표 9〉 참조).

〈표 9〉 대학별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교육비내역

대 학	과 정 명	교 육 비 구 성		
		자 부 담	지 원 금	총 액
서울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750,000	1,750,000	2,500,000
신구전문대	농업전문경영인과정		1,500,000	1,500,000
농협대학		750,000	1,750,000	2,500,000
충북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394,000	1,576,000	1,970,000
	창업농업경영자과정	500,000		
	겨울영농대학	100,000		100,000
충남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400,000	남자 1,800,000 여자 2,000,000	2,200,000 600,000
경상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96)	750,000	1,750,000	2,500,000
	최고여성농업경영자과정	400,000	1,600,000	2,000,000
진주산업대	최고영농자 과정	300,000	1,500,000	1,800,000

IV. 농학계 대학 확장교육의 성과와 문제점

1. 농학계 대학 확장교육의 성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중심으로 한 농학계 대학 확장교육은 한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예 농업인력과 지도자를 육성하는 교육으로 1993년도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설치되기 시작하여 1997년도에 강릉대학교, 안동대학교, 목포대학교, 단국대학교, 농협대학 등 5개 대학에 추가로 개설, 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총 19개 대학에 운영 중인 전문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은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교육프로그램의 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목적은 농촌지역사회에 필요한 지도자로 육성하는 데 두고 있는 바 대부분의 교육이수자들은 1년간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통하여 얻은 가장 큰 성과로 농업 전문기술의 향상과 농촌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동시에 배양하였다는 정도가 크게 나타나 앞으로 이들이 우리나라 농업·농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들 수 있다.

둘째, 최고농업경영자과정생들이 1년간의 과정을 통하여 가장 유익하고 즐거웠던 점들은 우선 동료와의 접촉기회와 전문교수로부터의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들이다. 특히 교육과정에서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대한 교수진들의 학습추진을 위한 요구가 강하고 적극적이었으며 또한 교육이수자들도 교육과정에 대한 빠른 적응으로 학습의욕이 높았다. 더욱이 관심있는 강의의 경우 질의, 응답의 토론학습이 매우 강화되었다.

셋째,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이수한 후에 대학에서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얻고자 하는 기대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이수생들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교수진들의 추수지도에 대한 실시방안 마련과 동시에 이를 지원하는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1년간의 최고농업경영자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농업기술과 지식을 각 지역사회로 전파하고 농촌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미래 정보화사회에 생존하기 위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2. 농학계 대학 확장교육의 문제점

이상의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중심으로 한 농학계 대학 확장교육은 농민들에 대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지속적으로 농학계 대학의 상설 교육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첫째,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농민후계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관의 독립성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현재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수료생에 대한 체계적인 추수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상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대한 지원의 부족으로 재학생의 교육에만 역점을 두고 있으며 수료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까지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

는 여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셋째,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학습자인 농민후계자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지역사회 지도자로서의 자질함양과 동시에 전문기술 습득의 교육내용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반영시킬 수 있는 인력 및 체제가 부족함으로써 농민후계자들을 위한 다양한 학습경험의 증대와 현장학습의 기회 제공 등 학습자들이 이론과 실제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인 강의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교육내용의 현장화 및 내실화가 부족하다. 일주일에 하루씩 며칠 간격을 두고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전문기술교육의 연계성 및 일관성의 약화로 교육 효과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원예반, 축산반 등 대분류로 구분하여 통합 교육함에 따른 수강생의 강의 관심도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축산반의 경우 양돈, 한우, 낙농, 양계 등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들을 한 교실에 모아서 관심분야가 서로 다른 강의를 진행함에 따라 수강생의 관심도가 저하되는 실정에 있다.

다섯째, 교육과정 운영의 지속성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교육비의 70~90%를 지방 정부의 교육비 보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당국의 의지 변화에 따라서 농업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과정이 지속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 예컨대 충청북도의 경우 1994년도부터 충북대와 건국대 등 두 학교에서 이 과정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제 4기생을 교육시켜 왔으나 제 5기생 교육비 지원예산이 도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여섯째, 전국의 19개 농학계 대학들이 독자

적인 여건과 필요성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 교과과정 편성과 강사초빙 등 여러 가지 교육내용에 있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간의 정보 교환 등을 비롯하여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미흡하다 할 것이다.

일곱째, 지방정부의 교육비 보조와 수강생의 등록금이 대학 당국의 기성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교육비의 일부가(서울대 30%, 전북대 20%) 학교의 간접 경비로 징수당하여 농업인을 위한 재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됨에 따라 실제 교육내용 자체가 부실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여덟째,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서 강의를 하는 농학계 대학 교수 및 일선 현장전문가들의 경우 본래의 임무인 학생지도, 책임 강의시간 및 연구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함으로써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책임지고 전담하여 농민후계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이 불비한 상황에 있다. 특히 점차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수료하는 수료생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자신의 지역이나 농장을 방문 지도하여 농민후계자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대학과 농촌 현장과의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수료생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요인은 결과적으로 농민후계자의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V. 결 론

1993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농학계 대학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확장교육은 대학중심 농촌지도사업의 새로운 시작임과 동시에 세계무역기구 WTO의 출범과 UR 협상의 타결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있는 농업·농촌에 대한 농학계 대학의 책무성을 반영한 것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농학계 대학의 확장교육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하는 것으로 결

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시작 단계에 있는 농학계 대학의 확장교육이 향후 우리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농학계 대학의 새로운 위상을 설정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인식이 대학 내부에서부터 확산될 수 있도록 농학계 대학의 확장교육에 대한 이념과 그 필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은 WTO의 출범과 UR협상의 타결로 전면 개방될 농산물 개방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건실하게 발전시켜 국가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행정기관 농촌지도사업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관·산·학 협조체제의 일환으로 대학중심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정책수립과정에 농학계 대학의 확장교육의 지원을 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전국 19개 대학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교육비 일부 지원을 통해 적극 개입함으로써 교육내용을 현장 수용에 적합하도록 내실화시키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가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운영의 지침시달을 통하여 대농민 교육비로 한정된 별도계정으로 독립 운용토록 지정하여 대학 당국이 타용도로 교육보조금을 전용하는 것을 억제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현재 각 지역마다 산재되어 있는 대농민 교육보조금 관리기관을 각 도당국의 농정국 소관으로 통일시킴으로써 농학계 대학 확장교육의 관리부서를 단순화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앞으로 농학계 대학의 확장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구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속히 제도화되어야 할 것들은 현재 특정사업의 성격에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학계 대학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상설기구화시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시작 단계에 있는 대학중심 농촌지도사업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전담교수제(extension professor)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VI. 참 고 문 헌

1. 안병찬. 1997. 영국의 대학확장 연구: 대학 사회 교육의 이념 형성과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 최민호. 1995. 농촌지도론: 농촌사회교육적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부.
3. Blackburn, D. J. (2nd ed.). 1984. *Extension Handbook*. Canada Cataloguing in Publication.
4. FAO(1990). *International Directory of Agricultural Extension Organizations*. Rom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5. Swanson, B. E. (ed.). 1984. *Agricultural Extension: A Reference Manual*. Vol I. Rom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6. Swanson, B. E. (ed.). 1984. *Agricultural Extension: A Reference Manual*. Vol II. Rom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